

## 대형악재 겹겹 '정치 실종'

고유가·쇠고기·노동계 파업 속수무책 ... 정치권 사태 악화 방지

세정부 들어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와 쇠고기 협상 파문, 화물연대·건설기계 노조 파업 등 대형 악재가 겹치고 있는 데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장기 파업으로 전국 산업·건설현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지만 총사퇴 의사를 밝힌 내각은 사태수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정치권은 정파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어 사태 악화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지역 경제계를 비롯한 지역민들은 "새 정부 들어 촛불시위, 화물연대 파업 등 대형 악재가 겹쳐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쇠고기 정국에 밀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17일 화물차 파업

공급 해소, LNG화물차 전환시 연료비 보조 등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내놓은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한데다 뒷북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가 파업할 경우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예고되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쇠고기 정국에만 매달린 나머지 화물연대를 사전에 설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운송료 인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지난 2003년 물류대란 때의 요구사항과 같은 것이었지만 정부의 단일한 상황 인식과 미온적 태도로 파업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다.

게다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화물연대의 주장이 요구 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는 등 대화보다는 원칙론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근본 처방 대신 '대중요법'으로 내놓은 고유가대책은 처사는 기름값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운송료를 현실화시키고 ▲기름값 보전액을 적정수준까지 올리며 ▲고속도로통행료 전일제 할인 방법을 통해 화물운전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뒷북치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또 이러한 대형 악재가 겹겹 노출되고 있음에도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커녕 여·야간은 물론 당내 갈등 양상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적 쇠산업을 둘러싸고 계파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생현안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등 정치권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등원 여부를 놓고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간, 중진의원 과 초선 의원간 갈등으로 파업 등 민생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민들은 "여·야간에도 국회 선 등원, 선 쇠고기 재협상 등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데도 화물연대 파업 등 '국가비상 사태'에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산업현장의 피해를 키우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경·윤영기 기자 jkpark@



대한조선이 오는 20일 해남조선소에서 첫 선박 명명식을 갖는다. 노르웨이 선주가 발주한 17만500t급 'HN-1001호'가 1도크에서 명명식을 기다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대한조선 첫 건조 선박 명명식

20일 해남조선소 ... 17만500t급 벌크선 'HN-1001호'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한조선이 오는 20일 해남군에 위치한 해남조선소에서 최초로 건조한 선박 'HN-1001호'의 명명식을 갖는다.

'HN-1001호'는 대한조선이 지난 2006년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으로부터 수주한 8척의 벌크선 가운데 하나로 전장 289m, 폭 45m 규모의 17만500t급 케이프사이드다.

대한조선은 지난해 8월 용골거치식(Keel-Laying)에 이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 이후 10개월 만에 선박을 인도하게 됐다. 이 선박은 오는 27일 선주 측에 인도돼 곡물·철광석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으로 처녀 출항길에 오를 예정이다.

대한조선은 신생 조선소임에도 남기 지연없이 계약기간 내에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운데다,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 중 최초로 국제선급연합회(IACS)가 규정한 공통규조규칙(CSR) 기준을 충족시킨 친환경 선박을 건조해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첫 선박 인도를 계기로 '글로벌 조선소'를 향한 대한조선의 성장세도 분계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남조선소 1도크에서는 두번째 선박에 대한 건조 공정이 70%를 웃돌고 있어, 오는 8월

말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조선은 올해에만 모두 5척의 케이프사이드급 벌크선을 인도하기로 돼 있다.

또 지난해 말 착공한 제 2도크 건설 역시 굴착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등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2도크는 길이 460m, 폭 115m 규모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등 2종류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 올 안에 완공돼 내년부터 이곳에서만 연간 14척의 배가 건조될 예정이다.

한편 선박 이름을 명명하는 스폰서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부인 최수복씨가 맡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말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조선은 올해에만 모두 5척의 케이프사이드급 벌크선을 인도하기로 돼 있다.

또 지난해 말 착공한 제 2도크 건설 역시 굴착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등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2도크는 길이 460m, 폭 115m 규모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등 2종류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 올 안에 완공돼 내년부터 이곳에서만 연간 14척의 배가 건조될 예정이다.

한편 선박 이름을 명명하는 스폰서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부인 최수복씨가 맡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정부 대책으로도 파업 못풀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 턱없이 못미쳐" 광주·전남 공장 휴업...피해 날로 확산

정부가 17일 관계부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화물연대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파업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화물연대 지도부와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전화 회의를 가진 결과 "정부 대책이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요구사항에 턱없이 못미치고 기존의 협상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수용 불가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특히 "화물차에 대한 정부의 유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놓으면 면세유 수준까지 내려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문제가 향후 정부와의 협상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은 표준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화물연대 지도부와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전화 회의를 가진 결과 "정부 대책이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요구사항에 턱없이 못미치고 기존의 협상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수용 불가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특히 "화물차에 대한 정부의 유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놓으면 면세유 수준까지 내려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문제가 향후 정부와의 협상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은 표준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인 표준운임제는 이달 중 총리실에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300만대의 화물차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17일 하룻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대우일렉트로닉스도 부품 공급이 안돼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여수수산업단 휴업스는 이날 11개 단위공장 가운데 절반을 만드는 1개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피해가 화물운송 차질에 따른 속출했다.

여수 울촌산업 조성 현장의 건설기계 가동률이 6%대에 그쳤으며, 도내 도로건설 현장 31곳과 하천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윤영기·인현주기자 penfoot@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인 표준운임제는 이달 중 총리실에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300만대의 화물차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17일 하룻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대우일렉트로닉스도 부품 공급이 안돼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여수수산업단 휴업스는 이날 11개 단위공장 가운데 절반을 만드는 1개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피해가 화물운송 차질에 따른 속출했다.

여수 울촌산업 조성 현장의 건설기계 가동률이 6%대에 그쳤으며, 도내 도로건설 현장 31곳과 하천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윤영기·인현주기자 penfoot@

## 한·미 쇠고기 '수출증명' 담판

미, 수정안 제시

한·미 통상장관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여부를 미국 정부가 감독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도입을 놓고 담판을 벌였다. <관련기사 4면>

우리 측 김종훈 본부장은 16일 오후(한국시간 17일) 워싱턴 D.C로 돌아와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슈워브 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비공식 협의에서 미국은 우리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과 관련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17일 오후(한국시간 18일 새벽)에는 수정안을 놓고 실무자간 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를 계속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연협뉴스



우리 경제는 힘차게 달려가야 하기에!



2008년 6월 18일 수요일  
www.kwangju.co.kr  
전화: 062-2200-500-222-8111